

# 동해안별신굿



윤 동 환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곳은 민중의 삶과 문화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0세기에 이르러 급속하게 진척된 근대화·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적 생활 형태나 민속은 상당 부분 파괴되거나 변화를 겪어왔다. 하지만 급격한 문화변동의 와중에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면서 민중의 현실 속에 뿌리내린 것도 있다.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동해안 굿’이다.

동해안 굿은 지역적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곳이다. 동해안의 무당들은 해안을 따라 각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근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동해안 굿을 담당하는 세습무 집단은 동해안을 따라 여러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여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속초·강릉·삼척·울진·영덕·포항·울산·부산 등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거주하며, 각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연고를 중심으로 하여 당골판을 확대한다.

동해안 굿은 동해안에 상주하는 무당들이 동해안의 최북단인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남쪽의 부산 다대포까지의 지리적 범역에서 행하는 모든 굿을 말한다. 동해안 굿에는 복과 안녕을 목적으로 하는 ‘재수굿’과 치병을 위한 ‘광인굿’, 죽은 자의 극락 천도를 위한 ‘오구굿’·‘수망굿’·‘천도굿’, 마을공동 제의로서 ‘서낭굿’·‘별신굿’·‘풍어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도 동해안 굿은 지역사람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은 채 전승되고 있다. 동해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굿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마을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별신굿은 대부분의 자연촌락에서 행해졌다. 마을의 전통에 따라 전혀 하지 않았던 곳도 있으나 몇몇 마을에 한정될 뿐이고, 대부분의 마을에서 오구굿을 비롯한 무속의례가 전승되었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서 산업화·공업화로 인하여 마을이 완전히 해체되었거나 당신(堂神)을 천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신굿이 전승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경북 울진 북면 덕천리의 퇴내나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대송·재골·덕신 등은 울진원전과 고리원전의 부지 편입으로 폐동되었고, 부산 해운대구 송단의 경우 아파트를 지은 후 마을이 해체되면서 전승력을 상실하였다. 울산 남구 황성동 황암과 중구 반구동 서원의 경우는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기 전에 골매기신을 천도함으로써 사실상 전승이 중단되었다.

별신굿의 전승지역은 동해안을 따라 분포하는데 굿 주기와 제일, 굿거리 등은 지역에 따라 유동적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동해안 전 지역을 실제 현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동해안별신굿의 전승현장은 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을 포함한 강원도 88개 지역, 울진·영덕·포항·경주를 포함한 경상북도 100개 지역, 울산 17개 지역, 부산 22개 지역이다. 모두 227개의 자연촌락에서 동해안별신굿이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다. 동해안별신굿은 대체로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별신굿을 주재할 제주(祭主) 또는 제관(祭官)은 굿을 하기 전에 미리 선정한다. 마을 또는 어촌계에서는 마을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제주를 선정하게 되는데, 생기를 보거나 나이 순이나 굴뚝차례, 또는 마을의 임원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주를 선정할 때는 부정이 없고 깨끗한 사람을 가려 뽑는다. 죽은 부정이 없고 가정에 우환이 없는 사람을 우선시 한다. 그러나 현재는 시속(時俗)에 따라 제주와 제관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제주와 제관의 경우 제일(祭日) 이외에도 마을을 위해 근신해야 하는 기간이 있고, 부정이나 흥사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굿을 맡아 진행할 대표무당인 당주무를 선정하고, 굿 계약에 대해 논의한다. 굿에 참석할 무당패의 인원과 지화(紙花)의 개수, 총 금액에 대해 협의하고 계약을 성사시킨다.

굿을 하기 전까지 제주는 목욕재계하면서 근신하고, 마을사람들은 제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굿에 필요한 천막과 물품을 구비한다. 무당들은 굿을 할 전날에 도착하여 굿당에 장식할 지화·허개등·탑등·용선 등을 제작한다. 다음날 본격적으로 굿이 시작되는데, 굿거리는 다음과 같다.

## 1. 부정굿

부정굿은 혹시 굿당 안에 끼여 있을지 모를 부정을 가시는 거리이다. 부정굿은 굿판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무녀는 무복인 쾌자를 입지 않고 저고리와 치마만 입은 채 앉아서 구연하였다. 무녀는 구연을 마친 뒤 일어서서 한지에 불을 붙여 부정을 가신다. 그리고 청수를 받아 손으로 짚어 뿌리고 굿당 밖에 청수를 쏟는다. 그리고 나서 잡곡을 뿌려 살을 막는다.

무녀는 제단 앞으로 와서 술을 잔에 부어들고는 영정부정을 물리기 위한 사설을 구연하고 술을 굿당 밖으로 버리고 부정굿을 마친다.

## 2. 청좌굿

청좌굿은 신을 청하여 좌정시키는 굿이다. 부정굿에서는 무녀가 한복만 입고 구연을 했지만, 청좌굿에서는 복색을 갖춰 입는다. 무녀는 한복 위에 청색 쾌자를 입고, 가슴에 연두색 띠를 두른다. 무녀는 오른손에 부채, 왼손에 수건을 들고 청좌굿을 구연하면 마을사람들은 신에게 바칠 메와 국을 올리고, 제주는 분향 재배하였다.

청좌굿을 마친 다음 무녀는 술잔에 새 술을 붓고 포를 가져와 악사들과 마주보고 앉아, “신야, 고사야. 신장님네요. … ○○동네에 금줄이(당주무가) 되(되어서) 왔습니다…” 하고, 신장과 대신(무당의 조상)을 위한 비손을 하고 청좌굿을 마친다.

### 3. 당맞이굿

당맞이굿은 마을의 동신이 좌정한 곳에 직접 가서 대에 내려 모시고 오는 굿거리이다. 무당과 마을사람은 굿당 앞에서 골매기대를 앞세우고 당으로 이동하고, 제주는 당에 도착하여 제상을 놓은 뒤 재배한다. 무당은 동신을 모시는 곳을 하고, 제주나 마을사람이 대를 잡는다. 대 끝에 신이 내리자 무녀는 잘 모시고 가겠다고 하였고, 동신을 대에 실어 굿당으로 이동한다.



▶ 당맞이를 하는 고 송명희 무녀(포항 계원별신굿 2010.07.15)

### 4. 화해굿

화해굿은 하회굿 또는 화회동참굿이라고 한다. 여러 신을 불러 화해시키고 동참시키는 굿거리이다. 무녀는 치마저고리 위에 남색 쾌자를 입고 연두색 가슴띠를 둘렀다. 무녀는 제의장소, 치국잡기를 하고 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농·풍어를 기원하였다. 무녀는 굿의 끝부분에 따라온 수부사자를 풀어먹이고 굿을 마친다.

### 5. 조상굿

조상굿은 각 집안의 조상을 청하여 대접하는 굿거리이다. 조상굿처럼 축원 위주의 무가는 “푸너리→청보무가→거무→토구름→축원→(놀음굿)→수부물림”로 구성된다. 무녀는 청보장단에 맞춰 제일, 제의장소 등을 고하고 조상신을 좌정시키고, 관중들에게 축원을 하고, 술잔과 신칼을 들어 사자풀이를 하고 굿을 마친다.

### 6. 세존굿

세존굿은 시존굿 또는 당금애기굿이라고 한다. 세존은 자식을 점지하고 수명장수를 해주는 신으로 인식한다. 굿을 시작하기 전 무녀는 치마저고리 위에 쾌자를 입고 연두색 가슴띠를 두르고, 오른손에 부채, 왼손엔 종이고깔을 든다. 그리고 목에는 백팔염주를 건다.

무녀는 제의 장소, 마을임원, 제일 일시 등을 구연하고, 별신굿을 하게 되었다고 신에게 고한다. 무녀는 없는 자손 점지하고, 있는 자손 수명장수 시켜주는 세존에게 동네 안과태평 시켜주고, 부귀공명 시켜주고, 심중 소원대로 소원성취 시켜주고, 가정마다 행복하게 해주시고, 일신성불 시켜달라고 빌어준다.

### 7. 지신굿

지신은 인간이 밭을 딛고 사는 땅의 신이다. 무당은 지신을 청하여 마을의 무사안위를 빈다. 무녀는 치마저고리 위에 남색 쾌자를 입고 연두색 가슴띠를 두른다. 무녀는 오른손에 부채를 들고 왼손엔 수건을 들고 무가를 구연하는데, “푸너리→청보무가→거무→토구름→축원→(놀음굿)→수부물림”으로 구성된다.

## 8. 산신굿

산신굿에서는 여러 명산의 산신을 청하여 마을의 안과태평을 빈다. 산신굿은 앞의 조상굿·지신굿과 마찬가지로 “푸너리→청보무가→거무→토구름→축원→(놀음굿)→수부물림”으로 구성된다.

## 9. 성주굿

성주는 가신의 일종으로 집안에서 으뜸가는 신령이다. 성주굿은 성주를 모셔서 각 가정의 안녕을 비는 굿거리이다. 무녀는 치마저고리 위에 남색 쾌자를 입고 연두색 가슴띠를 둘렀다. 또한 머리에는 갓을 쓰고 한지를 둘렀다. 무녀가 갓을 쓰는 이유는 갓(屨) 밑에 여자(女)가 굿을 하면 편안해지기(安) 때문이며, 갓 위에 한지를 두른 이유는 성주의 신체(神體)를 의미한다.

무녀는 오른손에 부채를 들고 왼손엔 손수건을 들고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무가를 구연한다. 성주굿에서는 성주를 모시기 위하여 각도 대목들이 나와 성주나무를 벤다. 그러나 산신제를 지내지 않아 도끼는 나무에 붙고 도끼자루는 손에 붙었다. 산신제를 지내고 톱질을 하였으나 톱니가 빠져 못쓰게 되었다. 다시 톱을 베퀨러 다음 전라도 대목들이 나와서 농부가를 하고 벽구놀이, 상모놀이, 민요 등을 한다.

대목들의 놀이가 끝난 후에 무녀는 흥두깨 위에 성주상을 세우고 제관에게 음복을 시킨 뒤 수부사자풀이를 하고 굿을 마친다.

## 10. 심청굿

심청굿은 눈(目)을 보호하고, 해업을 하는 사람의 눈을 밝게 해줘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서정적인 심청의 이야기는 고난한 관중들의 삶을 투영하여 정화(catharsis)시켜주고, 심청이야기에 담겨있는 가족관계 회복과 효의 실천을 상기시킨다.

심청굿의 내용은 심청전의 내용과 동일하다. 무녀는 구연을 마친 뒤 마을사람들에게 봉사점을 배준다. 마을임원들과 마을사람들은 술값과 산쌀을 뽑아 점을 배준 후 굿을 마친다.

## 11. 천왕굿

천왕(天王)은 하늘의 왕을 뜻하는 것으로 높은 직능을 가진 신격이다. 무당은 천왕을 청하여 마을의 안녕을 빈다. 천왕굿은 앞의 조상굿·지신굿·산신굿 등과 마찬가지로 “푸너리→청보무가→거무→토구름→축원→(놀음굿)→수부물림”으로 구성된다.

## 12. 군웅장수굿

군웅장수굿은 늦동우굿, 장수굿이라고도 한다. 군웅장수굿에서는 여러 장수(將帥)의 위엄과 힘을 빌려 마을의 액과 살을 막는다. 굿을 연행하는 이순덕 무녀는 치마저고리 위에 남색 쾌자를 입고 연두색 가슴띠를 둘렀다. 무녀는 오른손에 부채를 들고 왼손엔 수건을 들고 무가를 구연한다.

무녀는 장군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 입으로 낯동이를 물어 들어올리고, 마을사람들은 낯동이를 잡는다. 마을사람들이 낯동이를 잡는 것은 장수의 위력을 받기 위함이다. 낯동이에서 입을 떼 무녀는 낯동이를 내려엮은 다음 마을사람을 얹혀 살을 풀어주고 곶을 마친다.

### 13. 손님곶

손님곶은 별상곶이라고도 한다. 손님 또는 별상은 마마(천연두, 두창) 또는 홍역을 가져오는 신이다. 손님곶에서는 이러한 병을 막기 위해 무녀가 손님과 관련된 서사적 이야기인 손님풀이를 구연한다.

강남국의 각시손님, 시중손님, 호반손님 세 분이 조선 땅에 와서 하루 밤 유숙할 곳을 찾는다. 가난한 노구할매는 손님을 잘 대접하나, 김장자는 박대한다. 손님은 김장자의 외아들 철영이에게 손님을 준다. 김장자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빌자 손님은 낮게 해주었으나, 다시 푸대접하자 목숨을 앗아간다. 철영이는 손님이 타고 다니는 말을 모는 막동이가 된다. 손님곶은 아이에게 병을 주지 말고, 자손들을 잘 받들어달라고 기원하는 곳이다.

### 14. 제면곶

제면곶은 걸립곶, 계면곶, 말명곶이라고도 한다. 무조(巫祖)인 제면(말명)의 낯을 위로하고 마을의 안과태평을 비는 곳이다. 서사적 줄거리가 있는 제면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구연한 뒤, 마을사람에게 제면떡을 나눠 준다.

### 15. 용왕곶

수신(水神)인 용왕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어(豐漁)를 위하여 용왕곶을 한다. 용왕곶에서는 선주나 어민들을 불러서 곶당에 앉게 하고, 만선을 상징하는 한지를 머리에 맨다. 용왕곶에서는 어민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 16. 대내림

대내림은 동신을 골매기대에 내리는 곶거리이다. 당맞이곶에서 신을 내려 모셔왔다면, 대내림에서는 별신곶을 통해 신이 잘 응감하였는지를 묻는다. 또한 마을의 대소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 등을 묻는다.

### 17. 꽃노래 · 뱃노래 · 등노래

꽃노래는 꽃 이름풀이를 하면서 오신(娛神)하는 거리이다. 무녀들이 나와 곶당에 놓인 꽃을 양손에 갈라 쥐고 제단을 향해 절을 하고는 군무를 춘다. 뱃노래는 꽃노래를 마치고 바로 시작되었다. 마을사람들은 무녀들과 함께 용선에 묶은 뱃줄(무명천)을 당기며 풍어를 기원한다.


등노래는 초거리라고도 한다. 용선과 마찬가지로 탑등은 신이 타고 이동하는 수단이다. 무녀는 “둥글 둥글



수박등은...”으로 시작하는 ‘등 이름 짓는 대목’을 구연하고 마을사람들의 어깨에 탑등을 붙인다. 이러한 행위는 골매기신이 탑등을 타고 신의 공간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을사람들에게 액막음을 해주는 행위이다.

## 18. 거리굿

거리굿은 동해안별신굿의 마지막 제차에 행하는 굿거리이다. 이 굿거리에서는 이전 굿거리에서 미처 풀어먹이지 못했던 잡귀잡신을 불러 대접한다. 거리굿은 남무 1인의 주도 하에 연행하는데, 재담과 놀이, 극적 성격이 농후한 굿거리이다.

전통사회에서의 굿은 지역사회와 종교·문화적 토대 위에 형성되었다. 전통사회에서 강한 전승력을 확보하고 있던 굿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대부분 소멸하거나 공연화된 형태로 잔존하였으며, 설령 전승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디 맥락을 이탈해 있기 십상이다. 그러나 동해안 굿은 지역민의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전승되고 있다. 지역민은 굿을 통해 신앙·종교적으로 희구하는 한편 예술적·놀이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 귀신부르기(포항 계원별신굿 2010.07.15)



▶ 열사촌 상투 올리기(포항 계원별신굿 2010.07.15)



▶ 아이출산(포항 계원별신굿 2010.07.15)



▶ 금줄치기(포항 계원별신굿 2010.07.15)

### 참고문헌

- 윤동환 외, 『경북 포항 다릿돌별신굿』 I - IV,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 윤동환, 『동해안 무속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 민속원, 2010.
- 윤동환·김신호, 『포항 계원별신굿』, 문화체육관광부·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11.
- 윤동환, 『한국의 무가 11 - 동해안 필사본 무가』, 민속원, 2007.
- 윤동환, 『심청굿의 전승과 확산』, 『구비문학연구』 38, 한국구비문학회, 2014.